



결정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치우라는 판결에도 남은 시설물, 해율은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비용으로 철거할 권한 인정

대체집행

건물인도 판결에 따른 지상물 철거 수권결정



광 주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결 정

조
리
판

사 건

대체집행

채 권 :

법무법인 해율

채 무 :

주 문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0㎡,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725㎡,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4, 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800㎡ 각 지상에 설치된 철탑, 가마실 2개, 컨테이너 2개를 포함한 일체의 지상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 ~ ~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건물인도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뒤 토지 위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철탑과 가마실, 컨테이너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토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이행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관을 통해 철거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구한 사건입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핵심은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철거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별지 도면과 목록에 표시된 범위의 지상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철거할 장소와 대상이 기존 집행 근거와 맞아야 하므로 단순히 토지 위 모든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판결을 바탕으로 필요한 집행 권한을 구체화했습니다.

건물인도 판결에 따른 지상물 철거 수권결정

집과 가게에 걸린 문제, 당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판결 뒤에도 남은 지상 시설물. 해울은 상대방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철거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시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 토지 위 컨테이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 집행관을 통한 철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의 신청대리인으로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근거한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위임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지상물을 상대방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안 판결 이후 실제 이행을 위한 절차를 이어간 사례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정해진 토지 부분의 철탑, 가마실, 컨테이너 등을 포함한 지상물에 관하여 대체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철거를 진행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며 철거 완료 사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 단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율은 의뢰인이 확보한 판결을 다음 절차로 연결했습니다.

판결 뒤에도 남은 지상 시설물. 해율은 상대방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판결 뒤에도 남은 지상 시설물. 해율은 상대방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명도 이후에도 공장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 상대방에게 철거 비용을 부담시킬 방법을 찾는다면?
- 판결 이후 실제 권리 실현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